문 1. 다음 글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승선교(昇仙橋)는 선암사(仙巖寺)로 향하는 길에 있는 돌다리로 번잡한 속세와 경건한 세계 사이의 경계 역할을 했다.

승선교는 가운데에 무지개 모양의 홍예(虹霓)를 세우고 그 좌우에 석축을 쌓아 올린 홍예다리이다. 홍예는 위로부터 받는 하중을 좌우의 아래쪽으로 효과적으로 분산시켜 구조적 안정성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예로부터 동서양에서 널리 활용되었다. 홍예를 세우는 과정은 홍예 모양의 목조로 된 가설틀을 세우고, 그 위로 홍예석을 쌓아 올려 홍예가 완전히 세워지면, 가설틀을 해체하는 순으로 이루어진다. 홍예는 장대석(長臺石)의 단면을 사다리꼴로 잘 다듬어, 바닥에서부터 상부 가운데를 향해 차곡차곡 반원형으로 쌓아 올린다. 홍예석들은 서로를 단단하게 지지해 주기 때문에 특별한 접착 물질로 돌과 돌을 이어 붙이지 않음에도 견고하게 서 있다.

홍예를 만든 후에는 좌우와 위쪽에 주위의 막돌을 쌓아 올려 석축을 세웠는데 이로써 승선교는 온전한 다리의 형상을 갖게 되었다. 층의 구분이 없이 무질서하게 쌓인 듯 보이는 석축은 잘 다듬어진 홍예석과 대비가 되면서 전체적으로는 변화감 있는 조화미를 이룬다. 한편 승선교의 홍예 천장에는 용머리 모양의 장식 돌이 물길을 향해 돌출되어 있다. 이런 장식은 이 다리를 건너는 사람들이 물로부터 화를 입는 것을 방지한다고 여겨 만든 것이다.

녹음이 우거지고 물이 많은 계절에는 다리의 홍예가 잔잔하게 흐르는 물 위에 비친 홍예 그림자와 이어져 원 모양을 이루고 주변의 수목들의 그림자도 수면에 비친다. 이렇게 승선교와 주변 경관은 서로 어우러진다. 뿐만 아니라 그 아름다움은 계절마다 그 모습을 바꿔 가며 다채롭게 드러난다.

① 홍예석들은 접착제로 이어 붙여서 서로를 단단하게 지지한다.
② 홍예와 그 물그림자가 어우러져 생긴 원은 승선교의 미감을 형성한다.
③ 홍예는 조상들의 미의식이 잘 드러나는 우리나라 특유의 건축 구조이다.
④ 홍예는 사다리꼴 모양의 목조로 된 가설틀을 활용하여 홍예석을 쌓아 만든다.
⑤ 승선교의 하중은 상부 홍예석에 집중됨으로써 그 구조적 안정성이 확보된다.

문 2. 다음 글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맹자는 사회 혼란이 가중되는 시대적 환경 속에서 사회 안정을 위해 '의(義)'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이는 '의'는 공자가 제시한 '의'에 대한 견해를 강화한 것이었다. 공자는 사회 혼란을 치유하는 방법을 '인(仁)'의 실천에서 찾고, 자연스러운 도덕 감정인 '인'의 실현에 필요한 객관 규범으로서 '의'를 제시하였다. 이때 공자는 '의'를 '인'의 실천에 필요한 합리적 기준으로서 '정당함'을 의미한다고 보았다.

맹자는 공자와 마찬가지로 혈연관계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도덕 감정인 '인'의 확산이 필요함을 강조하면서도, '의'의 의미를 확장하여 '의'를 '인'과 대등한 지위로 격상하였다. 그는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은 '인'이고, 형을 공경하는 것은 '의'라고 하여 '의'를 가족 성원 간에도 지켜야 할 규범이라고 규정하였다. 그리고 나의 형을 공경하는 것에서 시작하여 남의 어른을 공경하는 것으로 나아가는 유비적 확장을 통해 '의'를 사회 일반의 행위 규범으로 정립하였다. 나아가 그는 '의'를 개인의 완성 및 개인과 사회의 조화를 위해 필수적인 행위 규범으로 설정하였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개인은 '의'를 실천하여 사회 질서 수립과 안정에 기여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맹자는 '의'가 이익 추구와 구분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사적인 욕망으로부터 비롯된 이익의 추구는 개인적으로는 '의'의 실천을 가로막고, 사회적으로는 혼란을 야기한다고 보았다.

맹자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도덕 행위를 할 수 있는 선한 마음이 선천적으로 내면에 갖춰져 있다는 일종의 도덕 내재주의를 주장하였다. 아울러 그는 어떤 것이 옳고 그른 것인지 판단할 수 있는 능력도 모든 인간의 마음에 갖춰져 있다고 하여 '의'를 실천할 수 있는 도덕적 역량이 내재화되어 있음을 제시하였다. 그 바탕 위에서, 도덕적 마음을 현실에서 실천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역설하였다. 그는 본래 갖추고 있는 선한 마음의 확충과 더불어 욕망의 절제가 필요하다고 보았으며, 생활에서 마주하는 사소한 일에서도 '의'를 실천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나아가 "목숨을 버리고 의를 취한다."라고 주장하여 '의'를 목숨을 버리더라도 실천해야 할 가치로 부각하였다.

① 맹자는 '인'의 확산보다 '의'의 의미 확장이 더 필요하다고 보았다.
② 맹자는 모든 사회적인 혼란은 사적 욕망 때문에 발생한다고 보았다.
③ 맹자는 인간의 잘못에 대한 수치심을 '의'를 실천하게 하는 동기로 보았다.
④ 공자는 '의'를 수단이자 기준으로 보지만 맹자는 '의'를 개인과 가정, 그리고 사회의 규범으로 본다.
⑤ 공자는 '의'를 기준으로의 정당함으로 보았기에 가족 성원 사이에서는 '의'가 아닌 '인'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문 3. 다음 글에서 알 수 없는 것은?

유학은 수기치인(修己治人)을 통해 성인(聖人)이 되기 위한 학문으로 성학(聖學)이라고도 불린다. '수기'는 사물을 탐구하고 앎을 투철히 하고 뜻을 성실하게 하고 마음을 바르게 하여 자신을 닦는 일이며, '치인'은 집안을 바르게 하고 나라를 통치하고 세상을 평화롭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수기치인을 통해 하늘의 도리인 천도(天道)와 합일되는 경지에 도달한 사람이 바로 '성인'이다. 이러한 유학의 이념을 적극 수용했던 율곡 이이는 수기치인의 도리를 밝힌 『성학집요』(1575)를 지어 이 땅에 유학의 이상 사회가 구현되기를 소망했다.

율곡은 수기를 위한 수양론과 치인을 위한 경세론을 전개하는데, 그 바탕은 만물을 '이(理)'와 '기(氣)'로 설명하는 이기론이다. 존재론의 측면에서 율곡은 '이'를 형체도 없고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존재하는 만물의 법칙이자 원리로 보고, '기'를 시간적인 선후와 공간적인 시작과 끝을 가지면서 끊임없이 변화하며 작동하는 물질적 요소로 본다. '이'와 '기'는 사물의 구성 요소로서 서로 다른 성질을 갖지만, '이'는 현실 세계에서 항상 '기'와 더불어 실제로 존재한다. 율곡은 이처럼 서로 구별되면서도 분리됨이 없이 존재하는 '이'와 '기'의 관계를 이기지묘(理氣之妙)라 표현한다.

수양론의 한 가지 기반으로, 율곡은 이통기국(理通氣局)을 주장한다. 이것은 만물이 하나의 동일한 '이'를 공유하지만, 다양한 '기'의 성질로 인해 서로 다른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가 동일하다면, 흐트러진 마음을 거두어들이는 거경(居敬), 경전을 읽고 공부하여 시비를 분별하는 궁리(窮理), 그리고 몸과 마음을 다스려 사욕을 극복하는 역행(力行)을 통해 '이'를 들어내는데 문제가 되는 기질을 변화시켜 성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율곡의 수양론의 핵심이다.

한편 율곡의 경세론은 만언봉사(1574)에 잘 나타난다. 율곡은 수양론의 논리를 '치인'에도 적용하여 "때에 따라 변할 수 있는 것은 법제이며, 시대를 막론하고 변할 수 없는 것이 왕도요, 어진 정치요, 삼강이요, 오륜이다."라고 하는데 이는 경세론의 핵심이 법제 개혁임을 드러낸 것이다.

① '수기'를 위한 수양론과 '치인'을 위한 경세론은 모두 천도의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② 성학은 하늘의 도리와 합일된 사람이 되기 위한 학문이다.
③ 율곡에 따를 때 성인과 일반인이 기질의 차이는 있지만 동일한 '이'를 갖기 때문에 일반인이라도 기질상의 병폐를 제거면 '천도'와 합일할 수 있다.
④ 율곡에 따를 때 법제는 '이'에 속하지 않지만 '이'를 드러낼 수 있도록 다듬어져야 할 대상이다.
⑤ 율곡에 따르면 시대와 무관하게 기본적 법 제도로 지위를 유지할 수 있는 법전은 존재할 수 없다.

문 4. 다음 「임장군전」의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조선대 실존 인물인 임경업의 일생을 작품화한 「임장군전」에서 임경업은 김자점의 거짓 조서로 옥에 가두어진다. 임경업은 조선에 돌아온 후 옥에 갇혀, '세자와 대군이 어찌 내 일을 모르고 구하지 않는가?'라며 고민한다. 한편 김자점의 부탁을 들은 옥졸은 물조차 주지 아니하여 임경업은 큰 곤란을 겼는데, 그 와중에 강직한 관원이 있어 임경업의 상황을 불쌍히 여겨 "김자점의 흉계로 장군이 역적으로 잡혀 있으니, 누명을 벗으라."는 조언을 한다. 임경업은 그 이야기를 들은 후 감옥문을 깨뜨리고 궁궐 내로 들어가 왕을 뵙는다.

왕은 죄를 청하는 임경업을 보고 옥에 가두어졌던 사실을 모르며 반가워하며, "만리타국에 갔다가 이제 돌아온 것을 보니 반가움이 끝이 없거늘 어떤 일로 죄가 있다고 하느냐?"라고 반문한다. 임경업은 머리를 땅에 닿도록 절하며 "신이 북경에 잡혀가다가 중간에 도망한 죄는 만번을 죽어도 아까울 것이 없습니다. 허나 3년간 타국에 계셨던 세자와 대군을 무인년에 모셔온 뒤 명나라와 함께 오랑캐 왕을 베어 병자년 원수까지 갚고자 하였다가 간사한 오랑캐에게 속아 북경에 잡혀갔던 것입니다. 이제 천행으로 살아 돌아왔더니, 어떤 이유인 줄 알지도 못하고 의주(義州)에서 잡혀왔습니다. 그러다 오늘 주상의 천안(天顔)을 뵈오니 이제 죽어도 한이 없사옵니다."라고 답하였다.

왕이 이야기를 듣고 대경하여 김자점에게 진상을 물으니 김자점은 "경업은 청나라에 반기를 든 역적이라 잡아 가두고자 하였나이다."라고 답한다. 그러자 왕이 노하여 "자점과 함께한 자를 금부에 가두고 경업은 물러가 쉬게 하라."라고 답하였다. 분기를 품은 김자점은 궁궐문 밖에 심복 수십명을 매복시켰다가, 임경업이 퇴궐할 때 불시에 달려들어 난타를 가했다. 「임장군전」에서 임경업은 이 일로 몸이 크게 상하여 며칠간 신음하다 죽으니, 향년 사십팔세이며 그 날은 기축(己丑)년 9월 26일이었다. 다음날 임경업이 죽은 모습을 확인한 세자와 대군이 이 일로 크게 분노하여 왕에게 전말을 전하니 왕은 김자점을 국문한 후 김자점과 그 삼족을 멸하였다.

① 김자점은 청나라의 지시로 임경업을 옥에 가두어 두었다.
② 임경업이 조선에 돌아오는 이동과정에서 체류한 나라는 최소 2개국이다.
③ 옥졸은 김자점의 부탁을 받아 거짓 조서를 근거로 임경업을 옥에 가두었다.
④ 임경업은 관원의 조언 이전까지는 국왕의 지시로 본인이 옥에 갇혔다고 생각했다.
⑤ 세자와 대군은 무인년 전년도에는 조선에 없었으나 기축년 당시에는 조선에 있었다.

문 5. 다음 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묵란화는 사군자의 하나인 난초에 관념을 투영하여 형상화한 그림으로, 여느 사군자화와 같이 군자가 마땅히 지녀야 할 품성을 담고 있다. 묵란화는 중국 북송 시대에 그려지기 시작하여 동북아시아 문인들에게 널리 퍼졌다. 문인들에게 시, 서예, 그림은 나눌 수 없는 하나였다. 묵란화는 문인들이 인문적 교양과 감성을 드러내는 수단이었다.

추사 김정희가 25세 되던 해에 그린 <석란(石蘭)>은 당시 청나라에서도 유행하던 전형적인 양식을 따른 묵란화이다. 화면에 공간감과 입체감을 부여하는 잎새들은 가지런하면서도 완만한 곡선을 따라 늘어져 있으며, 꽃은 소담하고 정갈하게 피어 있다. 도톰한 잎과 마른 잎, 둔중한 바위와 부드러운 잎의 대비가 돋보인다. 난 잎의 조심스러운 선들에서는 단아한 품격을, 잎들 사이로 핀 꽃에서는 고상한 품위를, 묵직한 바위에서는 돈후한 인품을 느낄 수 있으며 이는 당시 문인들이 지키려고 한 공통적 이상이다.

김정희의 예술 세계는 55세부터 장기간의 유배 생활을 거치면서 큰 변화를 보인다. 글씨는 추사체로 알려진 자유분방한 서체로 바뀌었고, 그림도 쓸쓸하고 처연한 느낌을 주는 화풍으로 바뀌어 갔다.

생을 마감하기 일 년 전인 69세 때 그렸다고 추정되는 <부작란도(不作蘭圖)>는 이러한 변화를 잘 보여준다. 거친 필법으로 화면 오른쪽 아래에서 시작된 몇 가닥의 잎은 왼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맞아, 오른쪽으로 뒤틀리듯 구부러져 있다. 그 중 유독 하나만 위로 솟구쳐 올라 허공을 가르지만, 그 잎 역시 부는 바람에 속절없이 꺾여 있다. 그 잎과 평행한 꽃대 하나, 바람에 맞서며 한 송이 꽃을 피웠다. 바람에 꺾이고, 맞서는 난초 꽃대와 꽃송이에서 세파에 시달려 쓸쓸하고 황량해진 그의 처지와 그것에 맞서는 강한 의지를 느낄 수 있다. 우리는 여기에서 김정희가 자신의 경험에서 느낀 세계와 묵란화의 표현 방법을 일치시켜, 문인 공통의 이상을 표출하는 관습적인 표현을 넘어 자신만의 감정을 충실히 드러낸 세계를 창출했음을 알 수 있다.

① 묵란화는 그림의 소재에 관념을 투영하여 형상화한 것이다.
② <석란>에서 소담하고 정갈한 꽃을 피워 내는 모습은 고상한 품위를 지키려는 김정희의 이상을 표상한 것이다.
③ <부작란도>에서 바람을 맞아 뒤틀리듯 구부러진 잎은 세상의 풍파에 시달린 김정희의 처지를 형상화한 것이다.
④ <석란>과 <부작란도>에 그려진 난초는 김정희가 자신의 인문적 교양과 감성을 표현하기 위해 선택한 소재이다.
⑤ <부작란도>에서 홀로 위로 솟구쳤다 꺾인 잎은 과거의 삶과 단절하겠다는 김정희 자신의 의지가 표현된 것이다.

문 6. 다음 글에서 추론할 수 있는 것은?

조선 후기의 관료 선발 제도 개혁론인 유형원의 공거제 구상은 능력주의적 인재 선발의 약점을 극복하려는 의도와 함께 세습의 문제점도 의식한 것이었다. 고염무는 관료제 상층에는 능력주의적 제도를 유지하되, 지방관인 지현들은 검증 기간을 거친 이후 그 지위를 평생 유지시켜 주고 세습의 길까지 열어 놓는 방안을 제안했다. 황종희는 지방의 관료가 자체적으로 관리를 초빙해서 시험한 후에 추천하는 '벽소'와 같은 옛 제도를 되살리는 방법으로 과거제를 보완하자고 주장했다.

이러한 개혁론은 17세기 전후에 갑작스럽게 등장한 것이 아니었다. 과거제를 시행했던 국가들에서는 수백 년에 걸쳐 과거제를 개선하라는 압력이 있었다. 시험 방식이 가져오는 부작용들은 과거제의 중요한 문제였다. 치열한 경쟁은 학문에 대한 깊이 있는 학습이 아니라 합격만을 목적으로 하는 형식적 학습을 하게 만들었고, 많은 인재들이 수험 생활에 장기간 매달리면서 재능을 낭비하는 현상도 낳았다. 인성이나 실무 능력을 평가할 수 없다는 이유로 시험의 과거제의 익명성에 대한 회의도 있었다.

과거제의 부작용에 대한 인식은 과거제를 통해 임용된 관리들의 활동에 대한 비판적 시각으로 연결되었다. 능력주의적 태도는 시험뿐 아니라 관리의 업무에 대한 평가에도 적용되었다. 세습적이지 않으면서 몇 년의 임기마다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관리들은 승진을 위해서 빨리 성과를 낼 필요가 있었기에, 지역 사회를 위해 장기적인 전망을 가지고 정책을 추진하기보다 가시적이고 단기적인 결과만을 중시하는 부작용을 가져왔다. 개인적 동기가 공공성과 상충되는 현상이 나타났던 것이다. 공동체 의식의 약화 역시 과거제의 부정적 결과로 인식되었다. 과거제 출신의 관리들이 공동체에 대한 소속감이 낮고 출세 지향적이기 때문에 세습 엘리트나 지역에서 천거된 관리에 비해 공동체에 대한 충성심이 약했던 것이다.

이처럼 과거제가 지속되는 시기 내내 과거제 이전에 대한 향수가 존재했던 것은 국가에 대한 소속감과 충성심을 과거제로 확보하기 어렵다는 역사적 경험에서 나온 판단 때문이었다. 이는 단순히 복고적인 것이 아니라 합리적인 제도가 가져온 역설적 상황을 역사적 경험과 주어진 사상적 자원을 활용하여 보완하고자 하는 시도였다.

① 과거제로 등용된 관리들의 봉건적 요소에 대한 지향은 공공성과 상충되는 세태로 나타났다.
② 과거제로 선발한 관료들은 세습 엘리트에 비해 개인적 동기가 강해 공동체 의식이 높지 않았다.
③ 유형원의 관료 선발 개혁 방식은 '벽소'를 활용하는 것 보다 관직 세습의 문제를 막는데 더 효과적이다.
④ 17세기 이후 조선의 관리 임용 제도는 관료가 국가에 대해 가지는 소속감과 충섬심을 이전보다 강조했다.
⑤ 과거제의 익명성은 사회적 지위 획득의 기회를 확대하는 데 기여했지만, 지나친 경쟁을 유발해 국가 전체의 비효율성을 초래했다.

문 7. 다음 글에서 추론할 수 없는 것은?

나비가 되어 자신조차 잊을 만큼 즐겁게 날아다니는 꿈을 꾸다 깨어난 장자(莊子)는 자신이 나비가 되는 꿈을 꾼 것인지 나비가 자신이 된 꿈을 꾸고 있는 것인지 의아해한다. 이 이야기 외에도 『장자』에는 '나를 잊는다'는 구절이 나오는 일화 두 편이 있다.

하나는 장자가 타인의 정원에 들어갔다는 것도 모른 채, 기이한 새의 뒤를 홀린 듯 쫓는 이야기이다. 여기서 장자는 바깥 사물에 마음을 통째로 빼앗겨 자신조차 잊어버리는 고도의 몰입을 대상에 사로잡혀 끌려다니는 꼴에 불과한 것으로 보았다. 이때 마음은 자신이 원하는 하나의 대상에만 과도하게 집착하여 그 어떤 것도 돌아보지 못한다. 이런 마음은 맹목적 욕망일 뿐이어서 감각적 체험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자신에게 이롭다거나 좋다고 생각하는 것만을 과장하거나 왜곡해서 받아들이고 그렇지 않은 것들은 배격하게 된다.

다른 하나는 "스승님의 마음은 불 꺼진 재와 같습니다."라는 말을 제자에게 들은 남곽자기(南郭子綦)라는 사람이 "나는 나 자신을 잊었다."라고 대답한 이야기이다. 여기서 '나 자신'은 마음을 가리키며, 마음을 잊었다는 것은 불꽃처럼 마음속에 치솟던 분별 작용이 사라졌음을 뜻한다. 달리 말해, 이는 텅 빈 마음이 되었다는 말이며 흔히 명경지수(明鏡止水)의 비유로 표현되는 정적(靜寂)의 상태를 뜻한다. 이런 고요한 마음을 유지해야 천지만물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도, 자신을 잊을 수도 있다.

첫째 이야기에서는 회복해야 할 '참된 자아'를 잊은 것이고 둘째 이야기에서는 시비를 따지려 드는 '편협한 자아'를 잊은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참된 자아를 잊은 채 대상에 탐닉하는 식으로 자아와 세계가 관계를 맺게 되면 그 대상에 종속되어 괴로움이 증폭된다고 장자는 생각한다. 한편 편협한 자아를 잊었다는 것은 세계와 자유롭게 소통하는 합일의 경지에 도달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장자는 이 경지를 만물의 상호 의존성으로 설명한다. 자아와 타자는 서로의 존재를 온전히 전제할 때 자신들의 존재가 드러날 수 있다고 그는 말한다. 예컨대, 내가 편견 없는 눈의 감각으로 꽃을 응시하면 그 꽃으로 인해 나의 존재가 성립되고 나로 인해 그 꽃 또한 존재의 의미를 획득하게 된다는 것이다.

① 불 꺼진 재와 같은 마음의 소유자라면 만물과 자유롭게 소통하겠군.
② 참된 자아가 세계와 관계를 맺으려면 감각적 체험을 배제해야 하겠군.
③ 마음을 바깥 사물에 빼앗긴다는 것은 참된 자아를 잊는다는 것과 같겠군.
④ 편협한 자아를 잊는 것은 타자와의 상호 의존적 관계 형성을 위한 바탕이 되겠군.
⑤ 장자가 꿈속에서 나비가 되어 자신조차 잊었다는 것은 마음이 명경지수와 같은 상태였다는 말이군.

문 8. 다음 글에서 추론할 수 있는 것은?

주희와 정약용은 『대학』에 나오는 표현인 '명명덕(明明德)'과 '친민(親民)'을 서로 다르게 해석한다. 경문 해석의 차이는 글자와 문장의 정확성을 따지는 훈고(訓詁)가 다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해석자의 사상적 관심이 다르기 때문이기도 하다. 먼저 주희는 '명덕(明德)'을 인간이 본래 지니고 있는 마음의 밝은 능력으로 해석한다. 인간이 올바른 행동을 할 수 있는 것은 명덕을 지니고 있어서인데 기질에 가려 명덕이 발휘되지 못하게 되면 잘못된 행동을 하게 된다. 따라서 도덕 실천을 위해서는 명덕이 발휘되도록 기질을 교정하는 공부가 필요하다. 그리고 '명명덕'은 바로 명덕이 발휘되도록 공부한다는 뜻이라 주희는 해석한다.

반면, 정약용은 명덕을 마음이 지닌 능력이 아니라 '효(孝)', '제(弟)', '자(慈)'와 같이 행위를 통해 실천해야 하는 구체적 덕목으로 해석한다. 어떤 사람을 효자라고 부르는 것은 그가 효를 실천할 수 있는 마음의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가 아니라 실제로 효를 실천했기 때문이다. '명명덕'은 구체적으로 효, 제, 자를 실천하도록 한다는 뜻이다.

유학자들은 자신이 먼저 인격자가 될 것을 강조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자신뿐 아니라 백성 또한 올바른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야 한다는 생각을 원칙으로 삼는다. 주희도 자신이 명덕을 밝힌 후에는 백성들도 그들이 지닌 명덕을 밝혀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한다고 본다. 백성을 가르쳐 그들을 새롭게 만드는 것이 바로 '신민(新民)'이다. 주희는 『대학』을 새로 편찬하면서 고본(古本) 『대학』의 '친민'을 '신민'으로 고쳤다. '친(親)'보다는 '신(新)'이 '백성을 새로운 사람으로 만든다'는 취지를 더 잘 표현한다고 보았던 것이다.

반면, 정약용은 친민을 신민으로 고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본다. 정약용은 '친민'을 백성들이 효, 제, 자의 덕목을 실천하도록 이끄는 것이라 해석한다. 즉 백성들로 하여금 자식이 어버이를 사랑하여 효도하고 어버이가 자식을 사랑하여 자애의 덕행을 실천하도록 이끄는 것이 친민이다. 백성들이 이전과 달리 효, 제, 자를 실천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새롭다는 뜻은 있지만 본래 글자를 고쳐서는 안 된다고 보았다.

① 주희는 사람들이 명덕을 교정하지 못하여 잘못된 행위를 한다고 보았다.
② 주희와 정약용의 경전 해석에서 글자의 훈고에 대해서는 언급되지 않았다.
③ 주희와 달리 정약용은 도덕 실천이 공동체 차원으로 확장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④ '신민'이라는 단어에는 백성 또한 도덕적 존재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반영되어 있다.
⑤ 정약용은 '친민'을 백성들이 효, 제, 자의 덕목을 실천하도록 이끌어 본래 지니고 있는 마음의 능력을 실천할 수 있게 하는 것이라 해석했다.

문 9. 다음 글에서 추론할 수 있는 것은?

신채호는 역사를 아(我)와 비아(非我)의 투쟁 과정이라고 정의한 바 있다. 그의 이러한 생각은 그를 투쟁만을 강조한 강경론자처럼 비춰지게 하곤 한다. 하지만 그는 식민지 민중과 제국주의 국가에서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민중 간의 연대를 지향하기도 했다.

신채호의 사상에서 아란 자기 본위에서 자신을 자각하는 주체인 동시에 항상 나와 상대하고 있는 존재인 비아와 마주 선 주체를 의미한다. 자신을 자각하는 누구나 아가 될 수 있다는 상대성을 지니면서 또한 비아와의 관계 속에서 비로소 아가 생성된다는 상대성도 지닌다. 그는 아의 자성(自性) , 곧 '나의 나됨'은 스스로의 고유성을 유지하려는 항성(恒性)과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여 적응하려는 변성(變性)이라는 두 요소로 이루어져 있다고 하였다. 아는 항성을 통해 아 자신에 대해 자각하며, 변성을 통해 비아와의 관계 속에서 자기의식을 갖게 되는 것으로 설정하였다. 그리고 자성이 시대와 환경에 따라 변화한다고 하였다.

신채호는 아를 소아와 대아로 구별하였다. 그에 따르면, 소아는 개별화된 개인적 아이며, 대아는 국가와 사회 차원의 아이다. 소아는 자성은 갖지만 상속성(相續性)과 보편성(普遍性)을 갖지 못하는 반면, 대아는 자성을 갖고 상속성과 보편성을 가질 수 있다. 여기서 상속성이란 시간적 차원에서 아의 생명력이 지속되는 것을 뜻하며, 보편성이란 공간적 차원에서 아의 영향력이 파급되는 것을 뜻한다. 상속성과 보편성은 긴밀한 관계를 가지는데, 보편성의 확보를 통해 상속성이 실현되며 상속성의 유지를 통해 보편성이 실현된다. 대아가 자성을 자각한 이후, 항성과 변성의 조화를 통해 상속성과 보편성을 실현할 수 있다. 만약 대아의 항성이 크고 변성이 작으면 환경에 순응하지 못하여 멸절(滅絶)할 것이며, 항성이 작고 변성이 크면 환경에 주체적으로 대응하지 못하여 우월한 비아에게 정복당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아의 개념을 통해 우리는 투쟁과 연대에 관한 신채호의 인식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다. 그는 조선 민중을 아의 중심에 놓으면서, 아에도 일본에 동화된 '아 속의 비아'가 있고, 일본이라는 비아에도 아와 연대할 수 있는 '비아 속의 아'가 있다고 보았다. 그는 제국주의 국가에서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민중과의 연대를 통하여 제국주의에 함께 저항할 수 있다고 보았던 것이다.

① 아의 항성이 커지면 아의 자성을 유지하기 어렵다.
② 소아의 항성과 변성이 조화를 이루면, 상속성과 보편성이 모두 실현된다.
③ 항성과 변성이 조화를 이루지 못하면, 대아의 상속성과 보편성은 실현되지 않는다.
④ 대아의 항성이 작고 변성이 크면, 상속성은 실현되어도 보편성은 실현되지 않는다.
⑤ 신채호는 대아인 조선 민족이 시대적 환경에 대응하여 비아와 연대하면 아의 생존을 꾀할 수 있다고 보았다.

문 10. 다음 글에서 추론할 수 있는 것은?

상고 시대 법에서 오형(五刑)은 중죄인에 대하여 내리는 형벌로, 이마에 저지른 범죄에 해당하는 글자를 새기는 묵형, 코나 팔꿈치, 생식기를 베어 내는 의형, 비형, 궁형, 죽이는 형인 대벽으로 나뉘었다. 다만 정상이 애처롭거나 신분과 공로가 높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오형 대신 유배형을 적용하였다. 나머지 경죄는 채찍이나 회초리를 쳤는데 따져볼 여지가 있는 경우에는 돈으로 대속할 수 있도록 하였고 과실로 저지른 행위는 유배나 속전 할 것 없이 처벌하지 않았다. 그러나 배경을 믿고 범행을 저질렀거나 재범한 경우에는 유배나 속전(贖錢)할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형을 집행하였다.

지금의 법을 보면, 유배형과 노역형으로 인하여 간악한 이를 효과적으로 막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그보다 더 무거운 형벌로 과도하게 적용하면 죽이지 않아도 될 범죄자를 죽일 수 있어 적당하지 않다. 예전처럼 의형, 비형, 궁형을 적용한다면, 신체는 다쳐도 목숨은 보전될 뿐만 아니라 뒷사람에게 경계도 되니 시의에 알맞은 일이다.

형법은 백성들이 그른 짓을 하지 않도록 교화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그러나 작금의 사법기관은 응보에 따라 화복(禍福)이 이루어진다는 말을 잘못 알고서, 죄의 적용을 자의적으로 하여 삿된 복을 구하려 한다. 죄 없는 이가 억울함을 풀지 못하고 죄 지은 자가 되려 풀려나게 하는 것은 악을 행하는 일일 뿐이니 무슨 복을 받겠는가? 지금의 사법관들은 죄수를 신중히 살핀다는 흠휼(欽恤)을 잘못 이해하여서, 사람의 죄를 관대하게 다루어 법 적용을 벗어나도록 해 주는 것으로 안다. 그리하여 죽여야 할 이들을 여러 구실을 들어, 혹은 향후의 금전 급부를 기대하며 감형되도록 한다. 이것이 뇌물을 받아 법을 가지고 논 것이지 어찌 흠휼이겠는가?

죄를 속전할 수 있도록 한다면, 부자들은 처벌을 면하고 가난한 이들만 형벌을 받을 것이니 가난한 자들만 이마에 범죄 명칭을 새길 것이다. 더욱이 지금은 살인과 상해에 대하여도 속전할 수 있도록 한다. 무고한 사람이 살해되었다면, 법관은 마땅히 자세히 살피고 분명히 조사하고, 의심의 여지가 없으면 반드시 목숨으로 갚도록 해야 한다.

① 지금의 법에 의하면 살인을 저질렀음에도 유배형을 받을 수 있다.
② 상고 시대 법에 따르면 중죄를 저지른 경우 용서없이 오형에 처해졌다.
③ 사법기관이 뇌물을 받아 죄를 자의적으로 감경한 경우, 흠휼을 제대로 적용했다고 할 수 없다.
④ 현재 형벌 구조에는 대벽, 유배형, 노역형만이 규정되어 있어 이것만으로는 범죄 예방에 충분하지 못하다.
⑤ 속전이 죄인의 재산에 비례하는 식으로 그 액수가 매겨진다면 재물 있는 자의 범죄를 막을 수 있을 것이다.

문 11. 다음 글에 대한 분석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조선 시대에 제례는 왕실부터 민간에 이르기까지 폭넓게 시행되었다. 따라서 유학자들에게 제사의 대상이 되는 귀신은 주요 논제일 수밖에 없었다. 귀신 존재에 대한 논의는 성리학의 자연철학에 기반한 합리성과 윤리성의 범위 안에서 제례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성리학 일반론에 따르면, 인간의 몸은 다른 사물과 마찬가지로 기로 이루어져 있고 생명을 다하면 그 몸을 이루고 있던 기가 흩어져 사라진다. 기의 소멸은 곧바로 이루어지지 않고 일정한 시간을 두고 진행된다. 그리고 그 흩어지는 과정에 있는 것이 귀신이라 보았다. 따라서 귀신의 존재는 유한할 수밖에 없었고, 이는 조상의 제사를 귀신이 존재할 수 있는 4대조 까지로 한정하는 근거였다.

그런데 먼 조상까지 제사를 지내는 것이 일반화되면서 먼 조상에 대한 제사의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생겼다. 이에 서경덕은 기의 항구성을 근거로 귀신의 영원성을 주장하였다. 모든 만물은 기의 작용에 의해 생성 소멸한다고 전제한 그는 삶과 죽음 사이에는 기가 모이고 흩어지는 차이가 있을 뿐 본질적인 기는 영원히 존재한다고 설명하였다.

기를 흩어지는 '형백(形魄)'과 그렇지 않은 '담일청허(湛一淸虛)'로 구분한 그는 '기에 유무가 없는 것은 담일청허가 한결같기 때문'이라고 주장하였다. 나아가 담일청허와 관련하여 인간의 정신이나 지각의 영원성도 주장하였다. 이 같은 서경덕의 기 개념은 우주자연의 보편 원리이자 도덕법칙인 불변하는 '이'와, 존재를 구성하는 질료이자 에너지인 가변적인 '기'라는 성리학의 이원 요소를 포용한 것이었다.

반면 이이는 현상 세계의 모든 존재는 '이'와 '기'가 서로 의존하여 생겨나며 마음의 작용인 지각은 없이는 일어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기가 완전히 소멸된 먼 조상에 대한 제사는 영원한 '이'를 통해서 감통할 수 있는 것이라 주장하였다. 기는 결국 흩어질 수 밖에 없으며, 한 번 흩어진 기는 더 이상 복구되지 않는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다만 이러한 이이의 주장은 본디 작위 능력이 배제된 '이'가 감통을 일으킨다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비판을 받았다.

① 이이는 '담일청허' 개념을 수용하지 않을 것이다.
② 이이에 의하더라도 4대조 위 조상에 대한 제사에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다.
③ 기는 형백에 불과하고 지각도 영원하지 않다면 서경덕의 주장은 약화되나, 이이의 주장은 약화되지 않는다.
④ 귀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에도 서경덕에 의하면 제사를 지내는 것은 여전히 유의미하다.
⑤ 성리학 일반론에 따를 때 기가 완전히 소멸되면 귀신이 존재할 수 없고, 통상 4대조 위 조상의 기는 완전히 소멸한다.

문 12. 다음 글의 내용이 참일 때 범인을 고르면?

어느 모임에서 지갑 도난 사건이 있었다. 여러 가지 증거를 근거로 혐의자는 A, B, C, D, E로 좁혀졌다. A, B, C, D, E 중 한 명이 범인이고, 그들의 진술은 다음과 같다.

A : 나는 훔치지 않았다. C도 훔치지 않았다. D가 훔쳤다.
B : 나는 훔치지 않았다. D도 훔치지 않았다. E가 진짜 범인을 알고 있다.
C : 나는 훔치지 않았다. E는 내가 모르는 사람이다. D가 훔쳤다.
D : 나는 훔치지 않았다. E가 훔쳤다. A가 내가 훔쳤다고 말한 것은 거짓말이다.
E : 나는 훔치지 않았다. B가 훔쳤다. C와 나는 오랜 친구이다.

추후 각각의 혐의자들이 말한 세 가지 진술 중에 두 가지는 참이지만 한 가지는 거짓이라고 밝혀졌다.

① A
② B
③ C
④ D
⑤ E

문 13. 다음 글의 내용이 참일 때 반드시 거짓인 것은?

> 세 개의 주머니 A, B, C가 있는데 각 주머니에는 세 장의 카드 [1], [2], [3]이 들어 있다. 갑이 주머니 A에서 한 장, 주머니 B에서 한 장, 주머니 C에서 한 장의 카드를 뽑아 모두 세 장의 카드를 가졌다. 그 다음, 을이 갑과 마찬가지로 주머니 A, B, C에서 각각 한 장의 카드를 뽑아 세 장의 카드를 가졌다. 마지막으로 병이 각 주머니에 남아 있는 한 장의 카드를 뽑아 세 장의 카드를 가졌다.
>
> 이 때 갑이 가지고 있는 카드는 [1], [2], [3], 을이 가지고 있는 카드도 [1], [2], [3], 병이 가지고 있는 카드도 [1], [2], [3]인 것으로 밝혀졌다.

① 갑이 A 주머니에서 [1]을 뽑고 을이 B 주머니에서 [1]을 뽑았다면 병은 C 주머니에서 반드시 [1]을 뽑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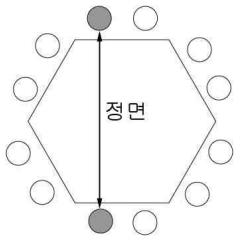
② 갑이 A 주머니에서 [1]을 뽑고 을이 B 주머니에서 [2]를 뽑았다면 병은 C 주머니에서 반드시 [3]을 뽑았다.

③ 갑이 A 주머니에서 [2]를 뽑고 을이 B 주머니에서 [2]를 뽑았다면 갑은 C 주머니에서 반드시 [1]을 뽑았다.

④ 갑이 A 주머니에서 [2]를 뽑고 을이 B 주머니에서 [1]을 뽑았다면 갑은 C 주머니에서 반드시 [1]을 뽑았다.

⑤ 갑이 A 주머니에서 [3]을 뽑고 을이 B 주머니에서 [2]를 뽑았다면 을은 C 주머니에서 반드시 [3]을 뽑았다.

문 14. 다음 글이 참일 때 밥의 입장에서 바로 왼쪽에 앉아 있는 사람은?

> A, B, C 삼국이 모여서 협상을 하려고 한다. A국과 B국은 서로 적국이고, C국은 양국을 중재하고자 하는 중립국이다. 각국은 각기 네 명의 대표단을 파견했고, 그 명단과 서열은 다음과 같다.
>
> A국 : 앨리스—밥—캐롤—데이빗
> B국 : 알레프—베쓰—기멜—달레쓰
> C국 : 갑수—을수—병수—정수
>
> 각국 대표들이 앉을 협상 테이블은 아래 그림과 같이 정육각형 모양이며, 각 면에 의자가 두 개씩 전체적으로 균등하게 배치되어 있고, 각국 대표들은 다음의 조건에 따라 의자에 앉아야 한다.
>
> 
>
>
> ○ 같은 나라 대표들끼리 세 명 이상 인접해 앉아서는 안 된다.
> ○ A와 C국 대표들이 앉는 순서는 서열의 순서와 시계방향이 일치해야 한다. 예컨대 앨리스 다음에 시계방향으로 밥, 캐롤, 데이빗의 순서로 앉아야 한다.
> ○ A와 B국의 대표들은 자신과 서열이 동등한 적국 대표와 정면으로 바로 마주보고 앉아야 한다.
> ○ 앨리스와 밥은 협상 테이블의 같은 면에 앉아야 한다.
> ○ 캐롤과 밥, 그리고 캐롤과 알레프 사이에 동일한 수의 대표가 앉아야 한다.
> ○ 데이빗은 B국 대표와 인접해서 앉아서는 안 된다.

① 갑수
② 을수
③ 병수
④ 데이빗
⑤ 달레쓰

문 15. 다음 글의 내용이 참일 때 정제된 R이라는 시작 물질로부터 신약 P를 얻기까지 필요한 최소 시간은?

어느 제약 회사에서 R이라는 시작 물질로부터 다음 과정에 따라 P라는 신약을 만들고자 한다. 이 회사에서는 여러 팀이 동시에 서로 다른 과정을 수행할 수 있다. 시작 물질인 R은 정제된 상태로 있으나 A~H까지의 모든 중간물질은 생성과정이 끝난 후 1시간의 정제 과정을 거쳐야만 다음 단계에 사용할 수 있다. 생성 과정에 필요한 시간은 다음과 같다.

생성과정			필요한 시간
R	→	A	5
R	→	B	8
R	→	C	10
A + B	→	D	6
C	→	E + F	7
F	→	G	3
D + E	→	H	5
G + H	→	P	2

① 24시간
② 27시간
③ 34시간
④ 45시간
⑤ 53시간

문 16. 다음 <규정>으로부터 추론한 것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규정>

제1조 ① 근로자는 자녀가 만 8세 이하인 동안 양육을 위한 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양육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② 양육휴직 기간은 자녀 1명당 1년이다.

제2조 ① 근로자는 자녀가 만 8세 이하인 동안 양육을 위하여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단축 후의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주당 35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근로시간 단축 기간은 자녀 1명당 1년이다. 다만 제1조제1항의 양육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가 제1조제2항의 휴직 기간 중 사용하지 않은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을 가산한다.

제3조 ① 근로자는 양육휴직 기간을 1회에 한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② 근로자는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나누어 사용하는 1회의 기간은 3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보 기>

ㄱ. 만 6세 딸과 만 5세 아들을 양육하는 갑이 지금까지 딸을 위해서만 8개월간 연속하여 양육휴직을 하였다면, 앞으로 그 자녀들을 위해 양육휴직을 할 수 있는 기간은 최대 16개월이다.

ㄴ. 만 2세 두 자녀를 양육하는 을이 지금까지 양육휴직 및 근로시간 단축을 한 적이 없고 앞으로 근로시간 단축만을 하고자 한다면, 그 자녀들을 위해 근로시간 단축을 할 수 있는 기간은 최대 2년이다.

ㄷ. 만 4세 아들을 양육하는 병이 그 아들이 만 1세일 때 6개월간 연속하여 양육휴직을 하였을 뿐 지금까지 근로시간 단축을 한 적이 없다면, 앞으로 그 아들을 위해 근로시간 단축을 최대 6개 기간으로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① ㄱ ② ㄴ ③ ㄱ, ㄷ
④ ㄴ, ㄷ ⑤ ㄱ, ㄴ, ㄷ

문 17. 다음 <규정>을 <사례>에 적용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규정>

제1조 ① 유실물(가축을 포함한다)의 습득자는 유실물을 신속하게 소유자에게 반환하거나 습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경찰서에 신고 및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유실물이 경찰서에 신고 및 제출된 경우 경찰서장은 유실물을 소유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소유자를 알 수 없을 때는 유실물이 신고 및 제출된 날부터 3일 이내에 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③ 경찰서에 제출된 유실물은 경찰서장이 보관하여야 하나, 경찰서장은 제출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적당한 자로 하여금 유실물을 보관하도록 명할 수 있다. 다만 이 조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자를 제외한다.

제2조 ① 유실물 공고 후 3개월이 경과하도록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면 습득자는 유실물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② 소유자는 자신의 권리를 포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습득자가 유실물을 습득한 때에 그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제3조 습득자 및 보관자는 소유자(제2조에 의해 소유권을 상실한 자는 포함하고 이를 취득한 자는 제외한다)에게 유실물의 제출·교부 및 가치보존에 소요된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제2조가 적용되는 경우의 습득자는 이를 청구할 수 없다.

<사례>

2020. 1. 13. 갑은 자기 소유의 염소 A를 팔러 시장에 가던 중에 A가 달아나자 뒤쫓다가 놓쳤다. 2020. 1. 14. 을은 길에서 다리에 상처를 입은 A를 발견하고 집으로 데려가 먹이를 주고 상처를 치료해 주었다. 2020. 1. 23. 을은 경찰서에 A의 습득사실을 알리고 A를 제출하였다. 경찰서장은 2020. 1. 24. 지역신문에 A의 발견 및 보관 사실을 공고하였다.

① 경찰서장은 을에게 A를 보관하도록 명할 수 없다.
② 갑이 2020. 4. 14. 경찰서장에게 A의 반환을 요구한다면 A를 데려올 수 있다.
③ 갑이 2020. 4. 14. 경찰서장에게 A에 대한 포기 의사를 밝혔다면 A는 2020. 1. 14.부터 을의 소유가 된다.
④ 갑이 2020. 4. 30. 경찰서장에게 A의 반환을 요구한다면 을은 갑에게 A의 상처 치료에 소요된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⑤ 갑이 2020. 4. 14. 경찰서장에게 A에 대한 포기 의사를 밝혔다면 경찰서장은 갑에게 A가 경찰서에 보관되어 있는 동안 소비한 사료에 대한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문 18. 다음 글에 대한 분석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X국과 Y국은 채권자나 채무자의 신청으로 법원의 선고를 받아 파산할 수 있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X국 : 개인이 빌린 돈을 갚지 못하는 경우, 파산하여 파산 당시에 가진 재산 모두를 채권자들에게 분배하면 남은 빚은 전부 탕감받는다. 법원은 파산한 자가 지급능력이 있음에도 일부러 돈을 갚지 않는 악의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빚 탕감을 허가해준다. 파산하여 빚을 탕감받은 자는 국민으로서 일상생활에서 누릴 수 있는 자유와 권리를 전혀 제한받지 않는다.

Y국 : 개인이 빌린 돈을 갚지 못하는 경우, 파산하여 파산 당시에 가진 재산 모두를 채권자들에게 분배하지만, 채권자의 허락이 없으면 그 채권자에 대해서는 남은 빚을 탕감받지 못한다. 채권자는 자신이 빌려준 돈을 전부 받을 때까지 파산 후 취득한 재산에 대해 제한 없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파산한 자는 일정 기간 구금되고 빚을 다 갚을 때까지 선거권이 박탈되며 파산 사실이 외부에 공개된다.

① 채권자들이 파산한 채무자에 대하여 빚을 갚도록 독촉하고 관련 소송이 끊임없이 이어질 것을 우려하는 사람은 X국 제도를 지지할 것이다.
② 개인은 스스로 결정하고 책임지는 이성적 존재이므로 무절제한 소비행위를 한 자를 국가가 나서서 도와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X국 제도를 반대할 것이다.
③ 채권자가 자기 채권을 우선적으로 회수하기 위하여 파산신청을 협박의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우려하는 사람은 Y국 제도를 지지할 것이다.
④ 파산위기에 처한 자가 기존의 빚을 갚기 위하여 또 다른 빚을 지는 등 계속 채권·채무관계를 형성할 것을 우려하는 사람은 Y국 제도를 반대할 것이다.
⑤ 파산 후의 채권·채무관계를 채권자의 의사에 좌우될 수 있게 한 결과, 가공의 채권자가 등장하는 등 사회적 혼란이 일어날 것을 우려하는 사람은 Y국 제도를 반대할 것이다.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문 19 ~ 문 20]

양자역학은 이론과 인간 경험 사이의 간극을 잘 보여준다. 입자 하나가 가상의 선을 기준으로 오른쪽에 있거나 왼쪽에 있다고 하자. 오른쪽에 있는 입자를 관측하면 우리는 그 위치를 '오른쪽'이라고 하고, 왼쪽에 있는 입자를 관측하면 그 위치를 '왼쪽'이라고 할 것이다. 반면 양자역학에 따르면 입자는 오른쪽과 왼쪽의 '중첩' 상태에 놓일 수 있다. 하지만 우리는 결코 이 중첩 상태를 경험하지 못하며, 언제나 '오른쪽' 또는 '왼쪽'이라고 관측한다. 입자의 위치를 측정하고 나면, 우리는 '오른쪽'과 '왼쪽' 가운데 오직 하나를 경험하며, 다른 경험은 결코 하지 못한다.

양자역학과 우리의 경험을 조화시키기 위해 양자역학에 대한 여러 해석이 제안되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우주가 여러 가지로 쪼개진다고 상상하고 여러 가지로 쪼개진 각각을 '가지'라고 하자. 이제 양자역학의 해석으로 다음 두 해석만 있다고 가정한다. 하나는 가지 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ST 해석이고, 다른 하나는 이를 허용하는 MW 해석이다. 오직 두 해석만 있기 때문에 한 해석이 참이면 다른 해석은 거짓이다. 우리의 경험은 두 해석 중 무엇을 확증하는가?

알려졌듯이, 입자의 위치를 관측할 때 '오른쪽'이 관측될 확률과 '왼쪽'이 관측될 확률은 1/2로 동일하다. 이는 다음과 같이 표현될 수 있다.

	가지1	가지2
ST	'오른쪽' 또는 '왼쪽'이 관측되지만, 둘 다 동시에 관측될 수는 없다.	
MW	'오른쪽'이 관측된다.	'왼쪽'이 관측된다.

입자를 관측한 결과 '오른쪽'이 관측되었다고 가정하자. 이는 다음과 같은 증거 R이 주어졌음을 뜻한다.

R : 관측된 입자의 위치가 '오른쪽'인 가지가 존재한다.

이제 다음 정의를 받아들이자. '증거 E가 가설 H를 확증한다'는 것은 '가설 H가 참인 조건에서 증거 E가 참일 확률이 가설 H가 거짓인 조건에서 증거 E가 참일 확률보다 더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ST 해석과 MW 해석을 가설로 간주할 때 증거 R이 이들 가설을 각각 확증하는지 따져보자. ST가 참인 조건에서 R이 참일 확률은 1/2이다. 왜냐하면 ST가 참인 조건에서는 가지가 하나밖에 없고, 가지가 하나밖에 없는 우주에서 '오른쪽'이 관측될 확률은 1/2이기 때문이다. 반면 ST가 거짓인 조건, 즉 MW가 참인 조건에서 R이 참일 확률은 1이다. 왜냐하면 MW가 참이라는 조건에서는 두 개의 가지가 있고 이 중 하나에서는 반드시 '오른쪽'이 관측되기 때문이다. 비슷한 방식으로 우리는 MW가 거짓인 조건에서 R이 참일 확률이 얼마인지도 알아낼 수 있다. 따라서

이제 '왼쪽'이 관측되었다면 어떻게 될까? 이는 다음과 같은 증거 L이 주어졌음을 뜻한다.

L : 관측된 입자의 위치가 '왼쪽'인 가지가 존재한다.

ST가 참인 조건에서 증거 L이 참일 확률은 1/2이다. 왜냐하면 ST가 참인 조건에서는 가지가 하나밖에 없고, 가지가 하나밖에 없는 우주에서 '왼쪽'이 관측될 확률은 1/2이기 때문이다. 반면 ST가 거짓인 조건, 즉 MW가 참인 조건에서 L이 참일 확률은 1이다. 왜냐하면 MW가 참인 조건에서는 가지가 두 개가 있고, 두 가지 가운데 하나에서는 반드시 '왼쪽'이 관측되기 때문이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종합할 때 우리는 ㉠ 흥미로운 결론에 도달한다.

문 19. 위 글의 빈칸에 들어갈 진술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R은 ST와 MW를 모두 확증한다.
② R은 ST와 MW 중 어느 것도 확증하지 못한다.
③ R은 ST를 확증하지 못하지만 MW는 확증한다.
④ R은 ST를 확증하지만 MW는 확증하지 못한다.
⑤ R이 ST와 MW 중 하나를 확증하지만 어느 것인지는 알 수 없다.

문 20. 위 글의 ㉠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양자역학의 한 해석이 확증되면 다른 해석도 확증된다.
② 우리의 모든 경험이 확증하는 양자역학의 해석은 없다.
③ 우리의 경험이 다르면 그 경험이 확증하는 양자역학의 해석도 다르다.
④ 특정한 경험은 양자역학의 두 해석을 모두 확증하거나 모두 확증하지 못한다.
⑤ 어떤 경험을 하든지 우리의 경험은 양자역학의 특정한 해석 하나만을 확증한다.